지상법석

고통그물 벗어 납니다"

마음속 생각만 비우면
희로애락에 걸리지 않고
자기 본바탕 볼 수 있습니다

꾸며 돌아다니지요. 방 안에 누워있는 자기는 완전히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몸을 방안에 놓고 마음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꿈에도 분명히 몸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누가 좋은 것 주면 먹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미친 개나 누가 칼들고 쫓아오면 도망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 도망갈 필요도 없지요. 모양이 없는데 물릴 것도 없고 찔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도망간다 이겁니다. 깨어보면 속았지요. 몸은 방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모양이 없는 그것이 자기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기를 망각해 버리고 백년 안쪽으로 살아가는 이 육체를 자기인 줄 알고 온갖 향락을 다하는 오욕락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힙니다.

중생은 오욕락 때문에 자기도 남도 괴롭혀
육체본위로 살면 영원한 생명의 빛 못만나

육체를 근본으로 삼으니까 과거의 전생 다생한 영원한 자기 생명력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척단구의 몸이 자기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나자빠지며 정신없어 하지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인도에는 갠지스강가에 피골이 상접한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앉아 청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육체를 떠나 자기 생명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도 남을 해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딱 앉아서 이 몸을 던져 쓰는 빛도 모양도 없는 자기 정신을 놓고 근본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사람들은 육체를 본위로 살지 않고 인간의 진리를 본위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는 장면에도 헤매지 않고 당황하지 않지요. 이 몸이 자기가 아닌 줄을 벌써 알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 인생을 목표로 사는게 아닙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을 갖고 나고 죽는 고통의 그물을 끊어버리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백년 사는 것도 바른 가르침으로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그걸 모르고 욕망에만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은 백년 인생도 점점 비참한 인생에 떨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전부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생각도 없을 때는 없습니다. 보통 중생의 세계에서는 무슨 생각이든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 생각도 안한다 해도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다 쉬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텅 비웠다 해도 비웠다는 생각 역시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자꾸 흐르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경계가 오고 기뻐할 때는 좋은 줄은 알지만 그것은 금방 꿈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또 어떠한 생각이 대신 밀어닥쳐 연신 붉은 생각, 푸른 생각, 흰 생각 온갖 생각이 난다 그 말이지요. 기쁜 생각 덤덤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온갖 생각이 자기의 부처를 가리고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이지요. 그걸 두고 불교에서 똘똘 뭉쳐 말하기를 '염기염멸이 즉 생사다(念起念滅 卽生死).' 즉 생각 일으키고 생각 끊어지고 하는 그것이 나고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에 든다는 말은 무념(無念) 즉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생각이 없으면 돌덩어리나 나무뭉터기 마냥 아무 감각도 없이 허공같이 된다는 말로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생각입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생각으로 도저히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무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흘러가는 그런 머트러운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머트러운 생각이 없을 때 내 본래 참으로 흐림이 없는 본바탕인 마음의 고향이 있고, 일어나는 생각을 쉴 때는 본바탕의 빛이 비치고 있다 그겁니다. 아주 생각이 없이 무슨 허공처럼 무정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이상의 위대한 빛이 흐르고 아주 밝고 밝은 꺼지지 않는 참으로 불생불멸하는 자기의 본바탕을 본다 그겁니다. 이렇듯 자기 마음만 깨쳐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마음 깨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웃기면 웃을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도 평등해서 어디서나 성불할 수 있습니다. 머리깍고 중이 되어 청정하게 계행을 지키고 절에 있다고 해서 불교를 전매특허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설거사 같은 이를 보십시오. 도반 셋이 가다가 어떤 여인하고 인연을 만나서 마을에 들어앉아 농사짓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아도 먼저 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에 간다고 꼭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법이 있지요. '이 뭣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울고 웃고 온갖 행동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누가 웃기면 웃고, 누가 부아돋구면 성내고, 추운 줄 알고 온갖 것 판단하는 그 핵심이 도대체 어떻게 된 물건인가? 이 뭣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불교를 뚫어내고 마음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불교지요.

종일 일을 하여 피곤하다 해도 세수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시간 작정해서 그동안 내가 잠은 덜 자지만 내 인생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마음먹고 딱 앉아서 '이 뭣고'를 붙잡고 화두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망상에 덮여 잠못이루고 뒤척이다보면 이 놈의 신경이 항상 활동을 하니까 신경이 피로해 질 수밖에요.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자도 항상 찌뿌듯한 게 잠이 맨날 부족하지요.

그런데 화두를 하고 자면 한 시간 두 시간 자다 일어나도 눈이 샛별 같고 아주 총명해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배를 안하거든요. 자기 전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세수하고 다부지게 앉아서 '이 뭣고'를 하는 겁니다. '이 뭣고'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순전히 내 시간이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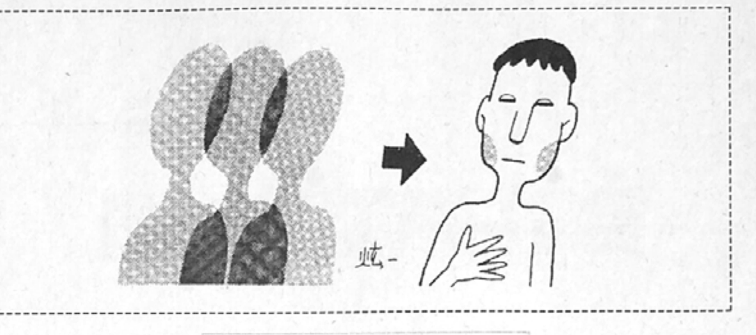
한 시간이고 얼마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하루 살아가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누가 부아를 질러도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않아요. 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공부를 안한 사람은 조금만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파르르하고 성을 내고, 서로 싸우고 친구간에도 의를 바꾸고, 부아가 되게 나면 아들딸 낳고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우리 그만 갈라지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요.

하는 일 마다 최선을

조그만 데 걸려가지고 아귀다툼하고 삽니다. 조금만 이 마음의 근본자리를 공부해 놓으면 누가 욕을 해도 허허 웃고 '아, 저 사람은 살아가는 세계가 저렇게 좁구나, 나도 공부하기 전에는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끄달렸지' 하고 오히려 동정이 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그만큼 자기 인생관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 마음자리가 본시 위대한데 천하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마음을 조그맣게 쓰기 때문에 항상 불행 속에 빠지는 겁니다. 화두를 하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넓게 쓰는 그런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 뭣고'를 하는 거지요.

항상 처음에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안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예 공부를 안하면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상이 일어나서 도무지 안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첫번에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어떤 때는 핸들도 부러뜨리고, 팔도 다치고, 무릎팍도 깨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집어던지면 평생 그 사람 자전거 못타는 겁니다.

첫번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자꾸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온갖 일을 해 가면서도 화두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부하는 쪽에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이 세상 살이에 모두 구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익어가기 마련입니다. 뭐든지 일심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한 가지로 하면 뚫어지는 구멍은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하는 이나 염불하는 이나 기도하는 이나 절하는 이나 일념으로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망상이란 구름을 헤치고 일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㉑

양 형 진

연기로서의 나타남

객관세계는 인연에 의존하는 '空'일뿐
용수보살 중관설 현대물리학이론 상통

우리는 지난 두번의 논의에서 연기와 공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생하고 흩어지고 멸한다는 것을 무지개나 짠맛, 촉각 등의 예에서 살펴보았다. 물방울이나 소금물 매끄러운 표면은 그 자체가 스스로의 독립적인 본성 즉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색이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색성공(色性空)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의 세계 즉 색이 자성이 없으면서도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실재 혹은 실유하는 줄로 알고 좇아다니게 되며 집착하게 되니 이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한다. 이 무명이 모든 번뇌망상의 근본이 되니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무명을 끊고 일체고액에서 해탈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듯 연기와 공에 있어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오늘은 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다.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에는 무지개의 자성이 없고 소금물에는 짜다는 자성이 없으며 매끄러운 표면에는 매끄럽다는 자성이 없지만 나에게 그것들이 무지개로 나타나고 짠 맛으로 나타나며 매끄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경우 공기중의 물방울, 햇빛, 광학법칙 등의 여러가지 제요소가 연하여 무지개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며, 이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무지개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다. 중아함경에서는 "마치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볏집에 연하고 피부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가옥이라는 명칭을 얻게되는 것처럼, 뼈에 연하고 근육에 연하고 피부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신체란 명칭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금강비구니의 게송에서는 "행의 온은 공으로서 거기에 중생은 있지 않다. 예를들어 부분이 모여 수레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제온이 있을때 중생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하였다.

객관의 부분인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가옥이라는 관념과 명칭이 생기고 몸의 여러 요소에 연하여 신체라는 관념과 명칭이 생기며 바퀴등의 여러 요소에 연하여 수레라는 관념과 명칭이 생기는 것이니, 마치 무지개와 마찬가지로 여러요소가 화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인연이 성립하여야 우리에게 비로소 그 지각 경험이 나타나고 그 관념이 나타나며 그 명칭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객관 세계는 오직 인연성일 뿐이니 이를 연기라 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즉 무자성공이요 색성공을 말함이다. 중론 제9장5게에서 용수보살은 이러한 상의상대(相依相待)의 연기설에 대하여 "원인이 없는 색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에 국한된 어떤 것을 결코 분별사유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또한 뼈와 근육, 살, 피부, 공간 등의 제요소가 화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인연이 성립함으로써 '나'라는 신체가 나타나고 '나'라는 관념이 생겨나며 '나'라는 명칭이 생겨난다. 따라서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인연에 의해 나타났을 뿐이니 나의 존재 또한 무지개와 같이 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관적 요소인 인(人)이 공이고 무아이며 객관적인 요소인 일체법이 또한 공이고 무아이다. 따라서 인법 모두가 무아이며 무실체이니 이를 인법이무아(人法二無我) 혹은 인법이공(人法二空)이라고 한다. 이상의 논의에 대하여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성이 적정하다(7장16게)" "만일 존재자의 자성을 실유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존재자가 인연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된다(24장16게)"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존재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24장19게)"

연기란 일체 존재가 원인의 화합에 의한 무상한 존재라는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연기론이 의미하는 바를 이것만으로 한정한다면 연기론은 자연과학의 법칙과 같이 객관적인 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연기론은 물론 이 우주적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이 인에 와서 부딪히면서 객관의 경계가 주관에 나타나고 관념과 명칭이 생기는 것까지를 연기론이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용수보살이 성립시킨 중관철학에서의 논의를 자연과학과 연관시켜 본 것이다. 용수보살은 부파불교의 실유론적 경향을 논파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중도의 진실한 뜻을 중관사상으로 펼쳐보였다. 이는 그 이후 대승불교 교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물리학의 제이론과 깊이 연관되는 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관철학을 주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자연에 대한 이해와 연관시켜 보았다.

다음에는 중관철학의 의미를 현대물리학의 제개념과 연관시켜 찰라멸, 승의제와 세속제, 무기, 진공 등의 의미를 계속하여 살펴보겠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불교성지순례

태 국 5日
卍 일정: 방콕(아유타야 불교유적지, 새벽사원, 에머랄드 사원, 황금불사원, 대리석 사원, 왓포, 수상시장, 왕궁, 2박)—파타야(미니시암, 농눅빌리지, 산호섬, 2박)
卍 출발일: 4月 12, 13, 19, 20, 26, 27
5月 3, 4, 10, 11, 17, 18, 24, 25, 31
卍 동참금: ₩ 595,000

미얀마 · 태국 8日
卍 일정: 양곤(1박)—파간(쉐에지곤 탑, 마누하 사원, 1박)—만달레이(백만불사, 보디타타웅, 마하무니 파고다, 만달레이 힐, 2박)—양곤(쉐다곤 대탑, 까바에 파고다, 1박)—방콕(새벽사원, 에머랄드사원, 왓포, 황금 불사원, 대리석 사원, 수상시장, 2박)
卍 출발일: 4月 12, 19, 26 / 5月 3, 10, 17, 24, 31
卍 동참금: ₩ 1,400,000

인도 · 네팔 10日
卍 일정: 델리(붉은성, 간디 기념비, 2박)—아그라(타지마할, 1박)—카쥬라호(카쥬라호 사원, 1박)—바라나시(갠지스 강, 사르나트 박물관, 2박)—카트만두(티벳사원, 쿠마리 사원, 2박)—방콕(1박)
卍 출발일: 4月 14, 21, 28 / 5月 5, 12, 19, 26
卍 동참금: ₩ 1,990,000

대 만 4日, 5日
卍 일정: 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태로각, 장춘사, 1박)—타이페이(고궁 박물관, 충열사, 용산사 1박)
卍 출발일: 4月 11, 14, 18, 21, 25, 28
5月 2, 5, 9, 12, 16, 19, 23, 26, 30
卍 동참금: ₩ 530,000 (4日) ₩ 595,000 (5日)

스리랑카 6日
卍 일정: 콜롬보(강가라마 사원, 1박)—캔디(불치사, 1박)—하바라나(시기리아성, 폴론나루와, 1박)—마힌탈레, 아누라다푸라(관광)—콜롬보(1박)—기내(1박)
卍 출발일: 4月 11, 18, 25 / 5月 2, 9, 16, 23, 30
卍 동참금: ₩ 1,070,000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9日
卍 일정: 카트만두(쿠마리 사원, 티벳사원, 2박)—델리(간디 기념비, 1박)—아그라(아그라성, 타지마할묘 1박)—기내(1박)—캔디(불치사, 폴론나루와, 1박)—콜롬보(1박))—방콕(에머랄드 사원)—기내(1박)
卍 출발일: 4月 15, 22, 29 / 5月 6, 13, 20, 27
卍 동참금: ₩ 1,895,000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효 도 관 광

방콕 · 파타야 5日 ₩ 569,000	방콕(1박)—파타야(2박)—기내(1박) 4月/6, ⑫ 13, ⑲ 20, ㉓ 26, 27 5月/③ 4, ⑩ 11, ⑰ 18, ㉔ 25, ㉛
방콕 · 푸켓 5日 ₩ 649,000	방콕(1박)—푸켓(3박)—기내(3박) 4月/12, ⑬ 19, ⑳ 26, ㉗ 5月/3, ④ 10, ⑪ 17, ⑱ 24, ㉕ 31
동남아 3국 5日 ₩ 655,000	싱가폴(4박)—바탐 · 조호바루(관광) 4月/8, 10, 12, 14, 15, 17, 19, 21, 22, 24, 26, 28, 29 5月/1, 3, 5, 6, 8, 10, 12, 13, 15, 17, 19, 20, 22, 24, 26, 27, 29, 31
대만 · 화련 4日 ₩ 495,000	타이페이(2박)—화련(1박) 4月/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5月/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1
홍콩 · 마카오 4日 ₩ 529,000	홍콩(3박)—마카오(관광) 4月/11, 13, 18, 20, 25, 27 5月/2, 4, 9, 11, 16, 18, 23, 25, 30
홍콩 · 방콕 · 싱가폴 8日 ₩ 995,000	홍콩(2박)—마카오(관광)—방콕(1박)—파타야(2박)—싱가폴(2박) 4月/9, 16, 23, 30 5月/7, 14, 21, 28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 795,000	방콕(1박)—푸켓(2박)—싱가폴(1박) 4月/11, 18, 25 5月/2, 9, 16, 23, 30
화와이 5日 ₩ 699,000	호놀룰루(3박)—기내(1박) 4月/9, 12, 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5月/3, 4, 6, 7, 10, 11, 13, 14, 17, 18, 20, 21, 24, 25, 27, 28, 31
지중해 일주 20日 ₩ 4,650,000	파리(1)—카사블랑카(2)—마라케쉬(관광)—탕기에르(1)—지브랄타(관광)—말라가(1)—그라나다 · 코르도바(관광)—세빌리아(1)—리스본(1)—마드리드(2)—바르셀로나(1)—아테네(1)—이스탄불(2)—예루살렘(2)—카이로(2)—룩소(1)—기내(1) 4月/15, 29 5月/6, 13, 27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LA(1)—아카풀코(2)—멕시코시티(2)—리마(1)—쿠즈코(2)—리마(1)—상파울로(1)—이과수(2)—부에노스 아이레스(1)—리오데자네이로(2)—마나우스(2)—마이애미(1)—기내(1) 4月/16, 30 5月/14, 28

불교 성지 순례 전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주)아태관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 (代)